

‘농·축산인 전진기지’ 광주축협 종합타운 문 열었다

서구 마곡동에 지상 3층 규모 하나로마트·육가공작업장 갖춰 전남 유일 특·광역시 조합 명성 “안전 먹거리 제공...도심형 축협”



김호상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장, 이개호 국회의원,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 이찬호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유통 상무, 진종문 NH농협무역 대표이사,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 김영주 합평축협 조합장

광주축산농협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타운이 문을 열었다.

광주축협은 종합타운을 통한 농·축산인 권익증진 기여와 광주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도심형 축협으로 거듭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17일 광주축협에 따르면 광주 서구 마곡동 172-8 일원에 1년 6개월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 15일 준공식을 가졌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종합타운은 △지하 1층에 육가공작업장,마트사무실 및 창고 △1층에 하나로마트 상무대리점 △2층에 상무대리점 사무실 △3층에 사무실, 대회의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이강 광주 서구청

을 비롯한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호상 광주축산농협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온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은 상호금융, 축산물 판매 등으로 농·축산인들에게 사랑받는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축산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심형 축협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타운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지하철역과 광주도심융합특구개발 예정지역과 인접해 있어 조합원과 고객의 접근성이 편리해 축산물 유통·판매, 금융업무 제공을 통한 교육과 지식·정보공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축산농협은 지난 15일 광주 서구 마곡동 172-8 일원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타운 준공식을 가졌다. **광주축협 제공**

종합타운 개점을 통해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광주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조합원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1958년 설립된 광주축협은 66년의 역사를 지닌 전남 유일의 특·광역시 협동조합이다. 광주 동구 학동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2013년 택지 재개발로 광산구 신촌동 건물로 이전했다. 올해 종합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마곡동 시대를 열게 됐다.

광주축협은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추진에도 적극적이다. 대불배합사료본부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24만 2560톤의 사료를 팔아 32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판매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익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김 조합장은 “농협사료와 함께 2022년 말부터 4차례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해 1400억원의 사료비 절감에 기여했다”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지만 영농비 부담

으로 버거워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사업은 최대한 이윤을 남기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사업에 이어 신제품 개발을 통한 농가 편의 제공에도 노력하고 있다. 어린 송아지의 이유 후부터 성장단계별 전 구간에 한 종류의 사료로만 급여하는 ‘원·피딩’ 시스템을 적용한 ‘하나로’ 사료를 지난 4월 출시했다. 사료를 다량 섭취한 개체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개체에도 설사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소 관리가 수월해 축산농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축협은 소비자 신뢰를 통해 성장하는 조합이 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김호상 광주축산농협조합장은 “정도경영을 통한 투명경영, 내실경영을 통한 실리주의경영, 현장경영을 통한 업무혁신의 3대 경영철학으로 금융서비스와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지원에 충실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산업 들을 지도·육성해 종합농협으로서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조선용 기자**

광주 백화점, 올 마지막 겨울 정기세일 돌입

광주신세계, 24일까지 최대 50% ↓ 롯데백, 내달 1일까지 프로모션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에 돌입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4일까지 본관과 플레이스팟(구 신관)의 120여개가 넘는 브랜드가 참여하는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세일에서 가장 할인 폭이 큰 브랜드는 ‘진도모피’, ‘동우모피’, ‘박성룡 모피’로, 최대 50% 이상 할인을 진행한다. ‘세사’, ‘구포컬렉션’, ‘클라르하임’ 등 휴패션 브랜드부터 ‘비렌’, ‘WMF’, ‘롯데’, ‘테팔’ 등 유명 주방용품까지 40% 이상 할인된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다. 여성 브랜드 ‘벨리시앙’와 남성·아웃도어 브랜드 ‘킨록 by 킨록앤더슨’, ‘본’, ‘레노마’, ‘블랙야크’를 비롯해 영캐주얼 브랜드 ‘파프리카(겨울 아우터에 한함)도 30% 할인가에 판매한다.

핸드백 브랜드 ‘메트로시티’, ‘다이아미’ 주얼리 브랜드를 비롯해 ‘금강’, ‘슈콤마보나’, ‘닥스’, ‘소다’, ‘바이레르’, ‘미

소페, ‘탠디’, ‘스타카토’ 등 구두 브랜드도 20% 이상 할인한다.

아이를 위한 ‘압소바’, ‘헤지스키즈’와 스포츠를 즐기는 고객을 위한 ‘아레나 수영복’, 침구 브랜드인 ‘알레르망’, ‘닥스’, ‘코지네스트’, ‘로라에솔리’, ‘앤스티치’, ‘운현궁’ 등 휴패션 브랜드도 20% 이상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도 연중 최대 세일 행사인 ‘2024 라스트 세일’을 진행한다. 다음달 1일까지 겨울 인기 상품들을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기 세일 행사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총 600여개 브랜드 할인 행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구스 다운과 매년 꾸준한 인기인 숏패딩, 롱패딩 등 인기 아우터까지 전 상품군에 걸쳐 1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행사 기간 백화점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F&B(식음료)매장에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금액할인권’을 총 5만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해당 할인은 롯데백화점 앱(APP)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전남 혁신기업들 ‘CES 혁신상’ 대거 수상

광주, 고스트페이스·에코피스 등 5곳 전남 XR기업 뉴작, 2개 분야 수상

광주·전남지역 혁신기업들이 ‘CES 2025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 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하는 광주지역 대표기업 5개사와 전남지역 1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전시회인 CES 개최를 앞두고 엔지니어링, 기능, 디자인,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에서는 4개사가 CES 혁신상을, 1개사가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CES 최고혁신상 수상 기업은 △고스트페이스(대표 이선관)로 광주기업 최초로 CES 혁신상은 △에코피스(대표 채인원) △주에스오에스랩(대표 정지성) △이-솔테크(대표 송중운) △썬인비즈(대표 박성철) 등 4개 기업이 받았다.

고스트페이스는 ‘온디바이스 생체 인식 결제 솔루션’으로 핀테크(FinTech)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거머쥐며, 광주지역 최초 최고혁신상과 2년 연속 혁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에코피스는 도심 속 호수공원에 설치돼 시민의 수상레저 활동과 함께 수질정화 기능을 갖는 융복합 제품 ‘힐링보트’로 스마트 도시(Smart Cities)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에코피스 역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주에스오에스랩은 ‘ML-U’로 첨단모빌리티(Vehicle Tech & Advanced Mobility)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ML-U’는 거리값과 색상 값을 생성할 수 있는 고차원 라이더(LiDAR) 센서다.

이-솔테크는 ‘공기 조화 및 IT 기술을 적용한 다목적 모듈러 챔버’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for All)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썬인비즈는 심장조음파 인공지능 자동화 솔루션 ‘AI 에코 케어’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 전남에서는 확장현실(XR) 기술 선도

기업 ㈜뉴작이 메타버스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수상작 ‘엑스러너(X-RUNNER)’는 헤드셋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첨단 확장현실(XR실) 플랫폼으로, 방향 재조정 걷기(RDW·Redirected Walking) 기술과 몰입형 가상 원격 체험(CAVE 텔레프레즌스)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가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 없이도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솔루션은 실내외 어디에서나 설치 가능해 건설, 방위산업, 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제 1146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번호	
6 11 17 19 40 43	2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5억2647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433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2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금감원 Q&A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문 실물이전 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답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확인을 받게 되며,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변경시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 실물이전은 서로 다른 퇴직연금 제도(DB, DC, IRP) 간에도 가능

한가.

답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DB, DC↔DC, IRP↔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문 실물 이전이 안되는 상품도 있나.

답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물이전 대상제도와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분증권, 리츠, ELF 등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그럼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

답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DLB 등), 공모펀드(MMF 제외), 채무증권,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 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한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

다. 즉,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문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얼마나 걸리나.

답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된다. 또한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